

종합

국민소득 '뒷걸음질'

올 1만7천달러…4년전 수준 추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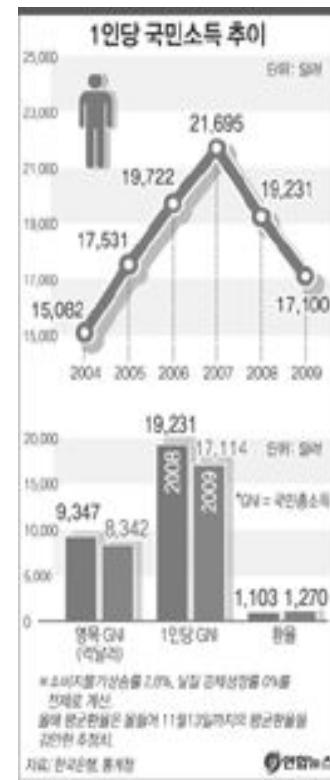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4년전 수준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년만에 4천500 달러가량이 급감하면서 환란 이후 최고의 감소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은 0% 안팎으로 예상되며 물가는 2.7~2.9%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달려당 1,270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올해 명목 국민총 소득(GNI)을 계산하면 원화로 1천59조9천41억원, 달러 기준으로 8천342억달러로 예상된다.

이를 올해 인구 4천75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소득은 2천170 만원, 1만7천100달러로 계산됐다.



1면 '하늘길 싸움'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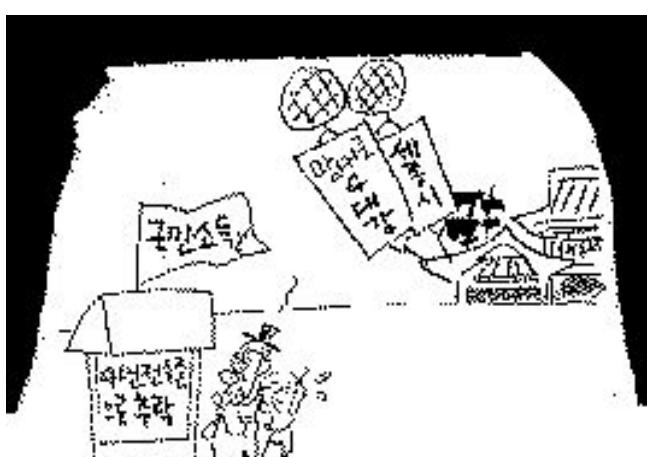
전남도는 “무안공항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광주공항 국내선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서남권 거점공항은 무안공항 한곳뿐이며 무안공항 건설은 광주·목포 공항의 기능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국책사업인 만큼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가 조만간 공항운영에 대해 지역민들을 상대로 실시하기로 한 여론조사 방침도 이 같은 양상에 기름을 부은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단순 여론조사는 어느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지금 당장에라도 양 시도와 정부가 모여 원래 계획대로 무안공항을 광주·전남의 거점공항으로 기능하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민관 합동 허가 청탁

- 김종우



돈 쓸 일 많은데 앞날이 깜깜하다

아동복지서비스 강화

16일 오후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아동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교육 및 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 설명회에서 박준영 도지사가 아동복지 마인드 향상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강진군 “정자 재감정 위원 2명 추가 고소”

“저가 감정 말 맞추기” 주장

강진군은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강진군의 고려 정자 ‘바자기 매입’ 의혹과 관련, 지난달 19일 공개 재감정에 참여한 재감정위원 2명을 추가 고소하기로 했다.

강진군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청자 공개

재감정 전날인 지난달 18일 성 의원의 보좌관과 재감정 위원 등이 만나 재감정 대책회의를 했다”며 “재감정 위원 2명은 각본에 따라 낮은 가격으로 감정했다”고 주장했다.

안금식 강진군 청자박물관장은 “고가매입 의혹 때문에 강진 청자의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입었다”며 “청자 구입 과정에 대한 모든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이

미 고소한 8명에 이어 재감정 위원 2명을 추가 고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윤환 의원 보좌관은 사전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강진군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강진군은 강진청자박물관이 2007년과 올해 각각 10억원에 구입한 청자 2점에 대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자 당시 감정 위원 등 8명을 고소했다.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공개 재감정을 실시했지만 재감정 위원 4명의 의견이 엇갈려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박경기자 jpark@kwangju.co.kr>

중학교 진로 관련 과목 신설

한자교육 강화…초등 교과목 현행 유지

미래형 교육과정 수정안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었던 초등학교의 교과목과 수업시간이 현재 5개에서 7개로 늘리기로 했으나 교과목 종류와 수를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이다. 다만 ‘우리들의 1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입시켜 학교 재량에 따라 가르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서울 삼청동 교원수련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과정) 제2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과정 시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2차 공청회에서 나온 시안 가운데 수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초등학교 단계의 교과목과 수업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차 시안에서는 초등학교의 ‘슬기로운 생활’, ‘바른생활’, ‘즐거운생활’, ‘우리들은 1학년’ 등의 교과목을 폐지 또는 재편하고 과목수를 현재 5개에서 7개로 늘리기로 했으나 교과목 종류와 수를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이다. 다만 ‘우리들의 1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입시켜 학교 재량에 따라 가르치도록 했다. 수업시간도 총 1천700시간으로 늘릴 예정이었으나 지금처럼 1천680시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학교에서 교과재량활동의 일부로 포함돼 있던 선택과목은 8개 교과 중 하나인 ‘선택’으로 포함시키고 선택과목에 ‘진로와 직업’을 신설해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 교육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고독성 농약 15종

2011년 이후 퇴출

2011년 이후에는 독성이 강한 고(高)독성 농약이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정부는 농약 제조업체와 협의해 2011년 이후에는 고독성 농약을 시장에 내놓지 않기로 했다. 그라목은 독성 분류상 보통독성에 속하지만 농촌 자살에 쓰이는 농약의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돼 ‘녹색 악마’로도 불린다.

<연합뉴스>

상속한정승인 공고

- 김종우

- 김종우